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당연함’ 속에서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으로 가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고, 학교에서는 깨끗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다. 회사에서는 정돈된 공간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빨래와 설거지가 어느새 해결되어 있다. 하루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일을 누가 했는지.

어쩌면 우리는 결과에는 익숙하지만 과정에는 무심한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발표를 준비하는 사람,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사람, 전체 일정을 챙기는 사람이 생긴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역할은 나뉘고,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의가 끝난 뒤 컵을 정리하는 사람, 프린터 용지를 채우는 사람, 주변을 정돈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특별히 맡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가정도 다르지 않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누군가는 싱크대로 향하고, 누군가는 식탁을 닦고, 누군가는 세탁기를 돌린다. 집은 다시 깨끗해지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종종 말한다.

“원래 그렇잖아.”

하지만 세상에 정말 ‘원래’ 정해진 역할이 있을까.

오랫동안 사회는 돌봄과 집안일, 경제활동과 같은 영역을 특정한 성별과 연결해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누군가는 가족을 돌보는 역할에 더 어울린다고 여겨졌고, 누군가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은 반드시 옳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모습이라고 해서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퇴근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의 숙제를 함께 살핀다. 누군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저 오늘은 그 사람이 자신의 몫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무거운 책상을 옮길 때 “남학생들이 하자”라는 말보다 “함께 들 수 있는 사람이 들자”라는 말이 자연스럽다. 조별 과제에서도 성별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역할이 정해진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설거지를 도와준다”는 말에는 여전히 집안일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

하지만 스스로 싱크대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사람은 맡겨진 일을 해냈을 때보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선택했을 때 더 큰 의미와 보람을 느낀다.

주체적인 인간이란 누군가가 정해진 역할만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주변을 살피고, 필요한 일을 스스로 판단하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양성평등은 단순히 역할을 똑같이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정해진 역할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가진 성 역할에 대한 인식 역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고 배우며 형성되어 온 것이다.

아이들의 시선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어른들에게 판사, 과학자, 간호사와 같은 직업을 떠올리게 하면 기존 사회가 만들어 온 이미지 때문에 특정 성별을 먼저 연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다.

아이들에게 판사는 남자의 직업도, 간호사는 여자의 직업도 아니다.

판사는 판사이고, 간호사는 간호사일 뿐이다.

누가 그 일을 하는지보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먼저 보인다.

어쩌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자신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역할을 선택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양성평등은 누군가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역할을 빼앗는 일도 아니다. 누구도 성별이라는 이유로 가능성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하루는 수많은 손길이 이어져 완성된다.

아침을 준비하는 손, 교실을 정리하는 손, 보고서를 만드는 손,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손, 설거지를 하는 손, 쓰레기를 버리는 손.

그 손에는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일 뿐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떤 일에는 성별이 있다고 믿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깨닫고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책임감과 배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체성이라는 것을.

변화는 거대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내가 먼저 움직이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필요한 순간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은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루는 언제나 누군가의 손으로 완성된다.

그 손이 누구의 것이든, 서로의 노력을 존중하는 세상.

나는 그것이 양성평등이 가장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일상이라고 믿는다